



© StoryRadius

美 성인 80% “AI 생성 영상, 몰입 방해”

최근 AI 생성 영상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토리텔링 기업 '스토리 라디우스(Story Radius)'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 라디우스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512명의 미국인 가운데 다수는 AI 생성 영상에 흥미를 잃거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AI 생성 영상에 대한 신뢰 문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AI 생성 영상이 콘텐츠 몰입을 방해한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28%는 “거의 항상”, 21%는 “매우 자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커졌다. 응답자의 49%는 AI 영상이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13%는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의 51%는 AI 생성 영상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보다 감정적 스토리텔링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이는 AI 영상에 감정적 연결이 결여돼 있음을 시사한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렌지카운티(OC) 지역 교계가 하나로 뭉쳤다. © 기독일보

2025 OC 교계 연합 성탄감사 및 송년회

OC교협·평신도연합회등연합 MK 80명에 장학금 전달 OC교협 회장 최국현 목사 신원규 목사 “교회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말해야”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렌지카운티(OC) 지역 교계가 하나로 뭉쳤다. OC기독교교협의회(이하 OC교협)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등 지역 기독교 기관들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2025년 OC 교계 연합 성탄감사 및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송년 모임을 넘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사 자녀(MK)들을 후원하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남 목사(OC교협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김영수 장로(OC장로협 신임회장)의 대표기도와 신웅 집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신원규 목사(증경회장, 좋은마을교회)가 ‘잃어버린 3직을 다시 찾아오는 교회(히브리서 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누가 교회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곧 그리스도인이 교

회”라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그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부여받았

다”며 “교회는 다른 무엇도 아닌 ‘십자가’를 말해야 하며, 어떤 프

로그램도십자가보다 우선될 수 없다. 오직십자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직분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기 끝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자녀(MK)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한성준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올해 8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5년 동안 총 267명의 학생들에게 13만 3,5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교회 연합 성가합창제와 10월 골프 대회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교계의 연합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실이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축사에서 “각 기관들이 앞장서 협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며 “이 장학금이 선교사 자녀

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MK를 위한 축복기도를 함께 드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흔한스러운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감사를 전했고,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 역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OC 교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했다. 조이스 안부에나파크 시장은 지면을 통해 “MK 장학금 수여식은 다음 세대에게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OC교협 이사장 민경업 목사는 환영사에서 “2025년은 전쟁과 이민 문제, 물가 상승 등 다사다난했지만, OC 교협은 다니엘 영적 부흥운동 등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해왔다”며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한 해”라고 밝혔다. 이창남 목사(OC교협 회장)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며 연합 사역의 기쁨을 강조했다.

윤우경 권사(크리스천헤럴드/사람과사회) 진행으로 이어진 2부 오찬 및 축하 순서에서는 다

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아리랑 합창단(단장 김경자)의 ‘주의 사랑 세상 이기네’, 소프라노 김미선 목사의 솔로 공연, 효사랑선교회 에어로폰 연주팀의 ‘순례자의 노래’, 무궁화합창단의 합창 등이 이어지며 성탄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의 식사 기도로 시작된 2부 순서는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의 마침 기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송년 감사예배 직전에 열린 OC교협 정기총회에서 2026년도 신임 회장에 최국현 목사(부에나파크 임마누엘 교회)가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단은 회장 최국현 목사, 부회장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이승필 목사(새로운교회), 총무 이사야 목사(뉴 스타트 교회), 회계 찰스 김 목사(한미교회), 서기 박은성 목사(글로벌 액츠 교회)로 구성됐다.

증경회장단으로 구성되어 교협의 베풀목이 될 이사회 조직도 발표됐다. 신임 이사장에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가 추대되었으며, 이사회 실무를 담당할 총무이사에는 직전 회장인 이창남 목사가 선임됐다.

토마스 맹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한 법률상식

마동한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이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한 변호사 그룹 대법·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콜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동부한인교협의회

회원명단

1. 선한목자교회 : 고태형 목사
2. 동부사랑의교회 : 우영화 목사
3. 주님Church : 최현규 목사
4. 유니온교회
5. 아름다운교회 : 고승희 목사
6. 나성한미교회 : 흥충수 목사
7. 글로벌선교교회 : 김지성 목사
8. 할렐루야교회
9. 좋은비전교회 : 최준우 목사
10. 브릿지교회 : 박진석 목사
11. 씨드교회 : 권혁빈 목사
12. 주님의교회 : 김병학 목사
13. 호산나교회 : 라세영 목사
14. 늘푸른교회 : 박선호 목사
15. 선한청지기교회 : 송병주 목사

회장 : 권혁빈 목사
부회장 : 흥충수 목사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 1면기사 (AI 생성 영상)에 이어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50%는 “AI 생성 영화나 TV 시리즈에 대해 결제할 의향이 없다”고 했으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전체 결제 의향은 25%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 AI 생성 영상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찬성자(26%)는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 생성 영상에 더 많이 노출되기를 원했다. 이들은 주로 젊은 남성, 영화 애호가, 비기독교적 종교를 가진 자, 북동부와 태평양 연안 지역 거주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AI 생성 영상에 대해 “고품질” 또는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74%는 AI 생성 콘텐츠에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자(51%)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주로 여성, 45세 이상 연령층,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부와 중서부 지역 거주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AI 콘텐츠에 대해 “불안하다”, “이상하다”, “감동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67%는 AI 생성 콘텐츠에 결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대자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는 AI 생성 영상의 ‘투명성 부족’과 ‘감정적 몰입 부족’이 됐다. 많은 응답자들은 AI 콘텐츠에 대해 “진짜 감동이 없다”, “인간적 창의성이 결여됐다”, “감정적으로 조작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AI 생성 영상이 배경 시각 요소나 기술적 실험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에서 중심 캐릭터의 연기나 감정적 스토리텔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AI 생성 영상이 향후 대중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많은 응답자는 AI 생성 콘텐츠의 확산이 소셜미디어 이용 감소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가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AI는 인간 창작물의 감동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의 대중적 수용을 위한 제언으로 △명확한 공개와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 △감정적 뉘앙스와 캐릭터 일관성에 대한 연구 △소셜미디어에서 AI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 △청중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정적 몰입과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OC 교협 제36차 총회 최국현 목사 회장 선출

OC교협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을 이끌어갈 신임 임원단을 공식 인준했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총회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는 총무 조진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부회장 최국현 목사가 기도하고 민경열 목사가 예배소서 6장 24절을 본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증경회장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사역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및 이사회 보고가 이어졌으며, 제36대 신임



승년 감사예배 직전에 열린 OC교협 정기총회. ©기독일보

회장단에 대한 인준이 진행됐다. 나파 임마누엘 교회(부)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에는 조진용 목사(바인

교회)와 이승필 목사(새로운 교회)가 함께 섭기게 됐다. 총무는 이사야 목사(뉴 스타트 교회)가, 회계는 찰스 김 목사(한미교회)가 맡는다. 서기에는 박은성 목사(글로벌 액츠 교회)가 선임됐다.

OC 교협은 새 임원단 출범을 통해 교계 연합과 다음 세대, 선교와 구제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갈 계획이다. 신임 임원단은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OC 교계를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 두 교회의 성탄 연합 콘서트

지난 21일(주일) 오후 2시 올림피과 사우스 브론슨길에 있는 I AM Church(정종원 목사)와 임마누엘교회(이진경 목사)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와 기타리스트 김진수가 준비한 성탄절 콘서트가 이 두 교회 연합으로 열렸다.

정종원 목사는 크리스마스 찬송과 함께 ‘소원’, ‘내 모든 소망’,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예수’(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영혼 살리시네), ‘예수를 바라보라’, ‘넌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복 있는 자는’를 부르며 그의 삶을 찾아왔던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겹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대로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사 나의 모든 짐을 다신지지 하나님”

그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는 표류한다. 그러나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도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항해를 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바라보자로 권고했다. 그의 노래에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사

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교회를 찾고 있다. 높은 산을 가야만, 어떤 업적을 성취해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기 한계가 있는데, 자기 삶에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게 잘 가는 것이다.”

이날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이진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현재 두 교회는 4120 W. Pico Blvd. LA, CA 90019의 건물을 함께 사용하며 주일 오전에는 임마누엘선교교회, 오후 1시에는 I AM Church가 예배를 드린다. 주디 한 기자



WMU 비전선포 및 기도의 날 & 간호학과 협력 모색

월드미션대학교는 12월 19일 오후 4시, 「비전선포 및 기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5 Day 웰링턴’을 진행하며, 재학생·동문·교직원 약 560명이 단체 카톡방에 참여해 비전을 나누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했다.

마지막 날 열린 본 행사에서는 WMU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동문·교수 대표들의 나눔과 함께 모금 결과가 발표되었

고, 목표 \$50,000를 넘어 총 \$91,864 가 모금되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이번 행사는 릴리재단의 1:3 매칭 도전에 응답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간호학과 조영식 교수는 지난 12월 4일,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정책 세미나에 초청되어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미국의 간호 교육과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앞서 조 교수는 12월 1~3일, 경남 도립 거창대학교 초청으로 열린 경남 글로벌 혁신페스타에 참석해 미

2025-2027 CAMPAIGN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A \$1,000,000 ENDOWMENT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4개월)
SPECIAL OPPORTUNITY!



국 간호사에 관심 있는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거창대학교 총장, 지역 RISE 사

업단 관계자, 마산대학교 및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간호교육 협력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교류했다.

LA장로교회 교회 이전 감사예배

할렐루야!

크렌셔장로교회가 “LA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 1월 4일(주일) 오전 10:30분

- 장소 :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A, CA 90005
- 문의 : 213-407-1600 (한현종 목사)
661-860-6226 (남형웅 장로)

주 일 예 배 :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 새벽 6:00
EM 주일 예 배 :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사랑의 빛진 자로 살겠다”

2012년 제3대 담임으로 부임
65세 조기 은퇴, 13년 목회에
마침표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신앙공동체인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노창수 3대 담임목사가 21일 퇴임했다.

노창수 목사는 이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에서 13년 3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내일부터 여러분의 담임목사님은 이원준 목사님이시고, 저의 담임목사님도 이원준 목사님”이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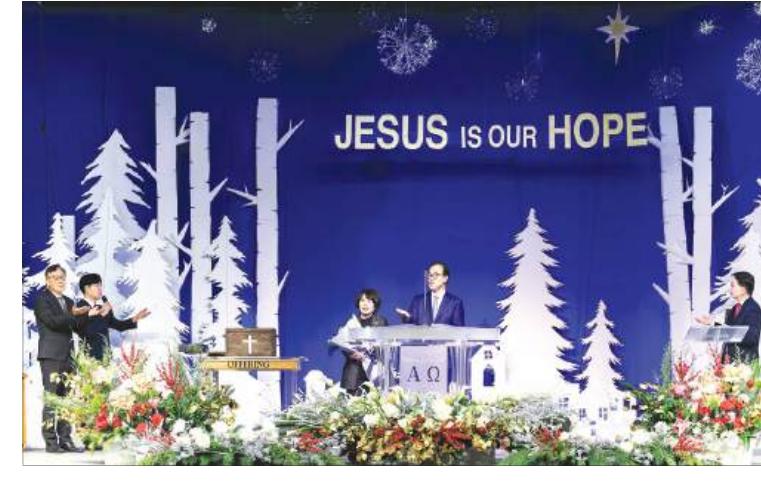
그는 남가주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 설교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평가, 희생과 헌신, 충성스러운 삶을 강조하며, 잠언 25장을 본문으로 교회가 계속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했다.

이날 1~4부 예배 중에 열린 특별 순서에서 당회 측은 “노 목사님이 13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 목사는 오정현 창립 목사, 김승우 2대 목사에 이어 지난 2012년 이 교회에 3대 담임으로 부임한 후 소외된 이웃과 미자립교회를 돋고 선교지를 늘리는 등 사역의 스펙트럼을 크게 확대했다.

65세에 담임직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결단을 한 그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해 준 교우들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며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교인들은 이날 41년간의 교회 목회를 은퇴한 노 목사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따스한 축복을 보냈다. 노 목사는 교인들에게 ‘불공평한 은혜’ ‘라떼 한 잔의 은혜’ 등 막



지난 21일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가 담임직에서 은퇴했다. © 남가주사랑의교회

출간한 저서 두 권을 선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현재 SEED국제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새로 설립한 선교단체 ‘M2G(Matter to God) 미니스트리’를 통해 교회,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영적 돌봄,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역을

힘차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남은 인생을 사랑의 빛진 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는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잘 섬기는 데 필요한 인적 지원, 사무실, 재정 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연락처: um2g2025@gmail.com

이원준 기자

중국의 종교 통제…시온교회 목회자 구금

시온교회와 관련된 목회자,
신도 약 30명 구금, 18명 체포

중국 당국이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문 대규모 단속을 벌이며 기독교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을 무더기로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공안이 지난 10월 초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공식 개신교 교회인 시온교회와 관련된 목회자와 신도 약 30명을 동시에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정식 체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 대상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시 자치구 등지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다. 직업 또한 변호사, 과학자, 음악 전공 학생 등으로 다양해, 단속이 특정 계층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반을 겨냥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경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는 조선족 목회자인 김명일 목사(중국명 진밍르, 영어명 에즈라 진)도 포함됐다. 김 목사는 2007년 베이징에서 미등록 복음주의 교회인 시온교회를 설립해 사역해 왔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 단체에 국가 등록과 정치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



시온교회에서 설교하는 에즈라 진 목사. © 순교자의소리

지 않는 교회들은 지하 형태로 활동해 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종교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됐다. 주요 가정교회들이 잇따라 폐쇄됐고, 시온교회 역시 2018년 이후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해야 했다. 이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신도 수가 급증했으나, 중국 정부는 최근 미인가 온라인 종교 활동까지 ‘정보 네트워크 불법 사용’ 혐의로 규정하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경찰이 예배 도중 교회 모임 장소에 들이닥치거나, 심야에 목회자 자택을 급습해 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트북과 종교 서적, 개인 기록물 등이 압수됐으며, 10월 이후에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 열린 시온교회 신도들의 추수감

사절 모임 역시 경찰에 의해 해산됐고, 일부 체포된 목회자들의 가족은 해외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탄압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한국의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시온교회를 돋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은 특별 모금 생방송을 통해 11월 말까지 약 10만 달러를 모금해 시온교회 측에 전달했다. 방송에는 김명일 목사의 부인 안나 류 사모와 딸 그레이스 김이 출연해 구금 상황과 중국 지하교회의 현실을 전했다.

국제사회 기독교인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미국의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와 함께 온라인 24시간 기도회를 열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선 기자



대한전문병원협회 재외동포지원재단 MOU 체결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재단법인 재외동포지원재단(이사장 강윤식)은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거주 동포들이 고국의 우수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생활로 한국의 의료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방문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

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네트워크 공유 ▲재단 등록 재외동포(ID카드 소지자) 대상 진료 혜택 제공 ▲재외동포 대상 전문병원 홍보 및 정보 제공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공동 개최 등이다.

재외동포지원재단은 협력의 취지에 공감하는 대한전문병원협회 소속 회원 병원들을 재외동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동포들이 ‘재외동포 ID카드’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재단은 기쁨 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우리아이들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재외동포지원재단 기사 제공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남가주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을 맞아, 남가주 전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사건이며, 교회가 다시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의 오심이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남가주 땅 위에 참된 회복과 새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장 김은목 목사



이사장 김향로 장로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KSCC새학기접수 추첨으로 바뀐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회장 이현옥, KSCCLA)가 2026년 첫 번째 학기(1~3월)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를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접수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기존 선착순 제도로 인해 밤샘 대기 등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에 부담이 커던 점을 고려해, 새해부터 추첨제로 전환한다. 센터 측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라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신설 과목으로는 오카리나 교실과 퓨전 한국무용이 있으며, 잠시 휴강했던 어반스케치 과목도 재개된다.

이로 인해 총 50개 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타운 미용실 대표들의 재능기부 무료 헤어컷(65세 이상 대상),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주관 법률상담(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매주 수요일 1:1 소셜워커 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교실+댄스,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시니어 수다방, 중·고교생 대상 STEM 교실, Open Bank 주관 똑똑한 금융 등이 계속된다.

접수 일정

추첨티켓 배포: 12월 29일(월) 오전 9시~낮 12시 (시니어센터 정문, 965 S. Normandie Ave., L.A. CA 90006) 본인이 직접 티켓을 받아 사인한 후 추첨함에 넣어야 한다.

추첨: 당일 오후 1시, 센터 2층 강당 문의: (213) 387-7733, ksccla@gmail.com, www.ksccla.com

ANC온누리교회가 예수님께 드린 성탄 선물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 연극은 전 성도가 함께 준비한 선물 같은 무대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담아 냈다. 연극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시작된다. GPS와 와이파이가 끊기며 당황하는 박사들의 모습, “별은 와이파이도 필요 없고 충전도 자동이지”라는 대사에 관객석에서 큰 웃음을 터졌다.

헤롯 왕의 질투와 위협, 박사들을 뒤쫓는 ‘카이’라는 가상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교차되며 극은 점점 깊이를 더해갔다.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연극 ‘카이의 크리스마스’를 공연했다.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 는 가장, 외로움에 지친 천막 제들, 베데스다 병원 대기실의 아픈 작소 직원 등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들, 생계를 위해 고단하게 일하 고난과 허무를 성경의 이야기 안

에 담았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 없이 달려 왔으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허무를 느끼던 카이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 대로 아기 예수님 앞에 이르러 진정한 왕을 만난다.

이 연극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아픔과 고민을 무대 위에 과감히 끌어들여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만든 점이다. 유머와 눈물, 찬양과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가운데, 전 세대 성도들이 함께 출연하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나 되어 부르는 찬양은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연합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조셉 리 기자

새언약학교 CORP, 재활 병원서 성탄의 사랑 전해

NCA 동아리 CORP(회복기 환자 지원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기독교 사립학교 새 언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의 동아리인 회복기 환자 지원 프로그램 (CORP, Convalescent Outreach & Recovery Program) 회원들이 알코 재활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성탄의 정을 전했다.

이번 방문을 위해 CORP 회원들은 약 일주일간 매일 아침 모여 사탕 지팡이와 과자, 푹신한 양말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120개를 정성껏 준비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환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새 언약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 CORP가 알코 재활 병원을 방문했다.

12월 6일, 회장 케일리 김(Kay-lee Kim), 부회장 에블린 리(Evelyn Lee), 기록 담당 에밀리 페레즈(Emily Perez), 총무 혜미 리(Hyemi Lee)를 비롯해 조나단 신(Jonathan Shin), 그레이스 제로니모(Grace Geronimo), 조이 신(Joy Shin), 클로이 하(Chloe Ha)

등 총 8명의 회원들은 병실을 방문하며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눴다.

참여 학생들은 “작은 선물이지만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CORP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선물 전달과 병원 방문을 이어가는 한편, 공연과 미술 활동,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섬김의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CORP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공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OC장로협의회 이취임식 27일

참된 장로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플러튼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제12대 회장 김영수 장로와 이사장 황치운 장로 이취임 예배를 드린다. 정석봉 장로(714-234-1856)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4시

주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나침반교회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나침반교회가 오는 28일(주일) 오후 4시 민경업 원로목사 주대 및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린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종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에서 수학했으며, 코로나의 뉴송교회를 섬겼다.

이취임식: 12월 28일(주일) 오후 4시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3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기쁘다 구주

2025 성탄절

오셨다

Joy to the World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담임이 동 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Normandie Ave. + 158th St)

213 - 447 - 3118

©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이
드리고 싶은
선물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한국 개신교 호감도 소폭 하락 “보수층서 높고, 진보층서 낮아”

‘여론속의여론’ 2025 종교인식조사... 불교 54.4, 천주교 52.7%, 개신교 34.7%

세대·지역별, 내·외부
간극도 여전
정치 성향별 ‘이념적 분화’
두드러져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여론’에 따르면, 2025년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34.7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하락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의 호감도가 모두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정온도 방식(0~100점)을 사용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했다. 한국리서치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은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은 100점, 긍·부정이 없는 경우는 50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불교 호감도는 54.4점으로 지난해보다 3.1점 상승하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천주교 역시 52.7점으로 4.1점 상승해 불교와 함께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유지했다. 반면 개신교는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개신교에 대해 51점 이상 긍정

불교(54.4점), 천주교(52.7점)은 보통 이상의 호감... 개신교 호감도는 34.7점으로 불교·천주교 대비 낮아
원불교 호감도는 30.3점, 이슬람교 호감도는 16.3점으로 매우 부정적

(단위: 점)



질문: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해 조사했다. 불교는 54.4점, 천주교는 52.7점으로 호감도 보통 이상이었으나, 개신교는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해 34.7점에 머물렀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적 감정을 가진 비율은 22%에 그쳤다. 이는 불교와 천주교의 절반 수준이다. 반대로 24점 이하의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인 응답자는 46%로, 불교나 천주교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개신교 호감도의 취약성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 개신교 호감도는 70세 이상에서만 보통에 근접한 49.0점을 기록했고, 6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는 모두 40점 미만이었다. 특히 30대는 26.8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으며, 40대는 28.8점

으로 전년 대비 7.0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26.9점)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5점 내외로 엇비슷했으나,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38.4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개신교 신자 내부와 외부에서의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개신교 내부에서 스스로 평가한 개신교 호감도는 77.2점으로 전년대비 5.8점 상승했다. 반면 천주교·불교 신자와 무종교인의 개신교 호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천주교 신자의 경우 28.0점으로 전년대비 7.5점 하락, 불교신자의 경우 22.9점으로 2.4점 하락했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개신교 호감도 역시 23.2점에 머물렀다.

개신교 호감도의 ‘이념적 분화’도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개신교 호감도는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2.5점 상승했다. 중도층은 35.1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진보층은 28.5점으로 전년대비 5.8점 하락했다. 한국리서치는

불교와 천주교는 진보층의 호감도가 가장 높고 이념 성향 간 격차도 7점 내외인 반면, 개신교는 보수층의 호감도가 가장 높고 이념 간 격차가 13.0점으로 두 배 가량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계엄 응호 및 탄핵 반대 집회가 개신교 호감도의 이념적 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가 삶에 주는 효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응답자의 82%는 종교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긍정적인 감정(78%)”, “윤리적인 행동(74%)”, “인간관계(74%)”, “소속감(74%)”에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개신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은 8개 항목 중 7개에서 80%를 넘으며 가장 높았고, 특히 윤리적 행동, 안정감, 긍정적 감정, 가치관 항목은 91~92%에 달했다. 한국리서치는 “종교의 내면적·정서적 기능에 대해서는 신자·비신자, 종교·활동 빈도를 불문하고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목표 달성이거나 소속감, 인간관계 같은 기복적·관계적 영역에서는 믿는 종교와 종교 활동 참여도에 따라 인식이 크게 갈린다”고 분석했다. 이윤준 기자

목회자들이 올 한 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목회자들은 2025년 한 해, 그들의 생활 중 가장 지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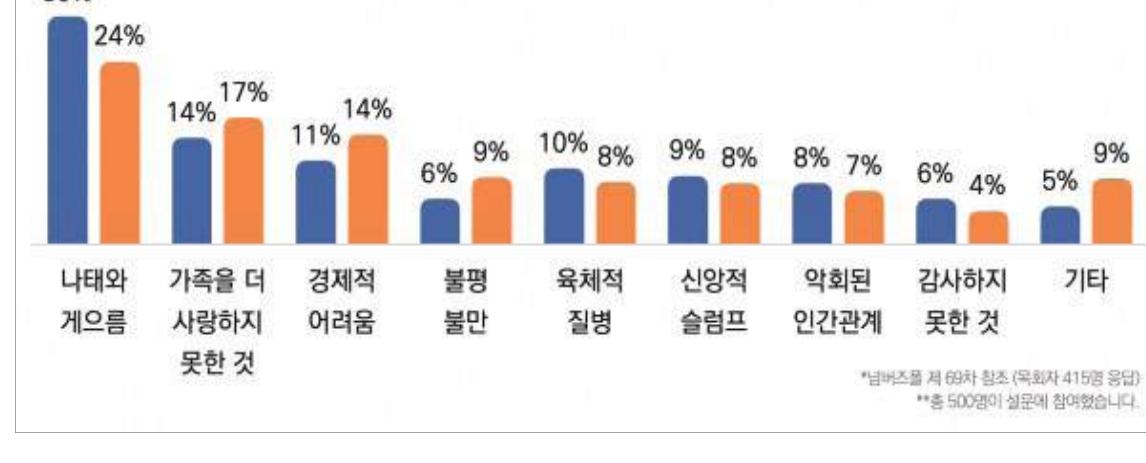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구독자들 중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이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나태와 게으름’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17%, ‘경제적 어려움’ 14%, ‘불평 불만’ 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인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기도에 충분히 힘

쓰지 못한 것’,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피로’ 등이 언급되어, 사역과 일상 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드러났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또 목데연에 따르면 전년 동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위 1~3위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태와 게으름’은 감소한 반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증가해, 목회자들의 관심과 부담이 개인의 태도 문제에서 가정과 생계 영역으로 다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목데연은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올 한 해 목사님의 생활 중 지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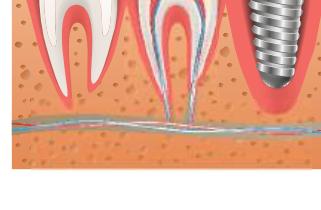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늘 [Koreatown] 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이란, 기독교 개종자들에 중형 선고... 국제사회 우려 고조

알리 하메네이의 "가정교회는 국가적 위협" 발언이 직접적 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국제社会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악명 높은 예빈교도 소에 수감된 아이다 나자플로우(Aida Najaflou·44)는 척추 골절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건강 악화 속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 아티클18에 따르면, 나자플로우는 지난 10월 21일 판결에서 다섯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총 5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이란 형법 개정 제500조에 따라 10년형을, '집회 및 공모' 혐의로 5년형을, 소셜미디어 계시물 관련 '선전' 혐의로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나자플로우는 최근 척추 수술 후 상처 감염으로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나자플로우가 척추 손상에 따른 마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가저항위원회(NCRI) 여성위원회 역시 "그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다.

나자플로우 외에도 이란계 아르메니아인 목사 조셉 샤바지안(Jo-



(왼쪽부터 순서대로)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 만수르 보르지, 리다 샤바지안, 아이다 나자플로우. ©아티클18

seph Shahbazian), 샤바지안의 아내 리다(Lida), 기독교 개종자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Nasser Navard Gol-Tapeh),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한 명이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샤바지안과 골-타페는 가정교회 연루 혐의로 이미 6년간 복역한 뒤 올해 2월 재체포됐다. 리다는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10년형에 다른 혐의로 5년형을 더 받았다.

아티클18의 만수르 보르지(Mansour Borji) 국장은 "이들의 성경과 기독교 문헌들은 정보부에 의해 '연구 목적'으로 압수됐고, 재판 과정에서는 장기 구금과 과도한 보석금 요구 등 적법 절차의 부재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골-타페는 과거 5년간 에 교도

소에 수감됐다가 2022년 10월 사면됐으나, 재체포 이후 단식 투쟁 중 뇌출증을 겪었다. 샤바지안 역시 2023년 9월 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건강 악화를 겪은 바 있다.

보르지 국장은 "이번 기소는 2010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의 연설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하메네이가 가정교회를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 폭력과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개신교와 '시온주의 기독교'를 동일시하며 해외 이란 기독교 단체들을 외국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몰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샤바지안과 골-타페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누려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규정됐다.

골-타페는 고백에서 "이 행위는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의 일부다. 나는 기독교 신학을 배우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란은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2025년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WWL)에서 9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란에 대해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쉘 기자

전 세계 어린이 위한 성탄 선물...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새 사마리안퍼스 센터, 1만 1,700 명 이상 자원봉사자 참여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에 새로 문을 연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센터에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한국 교회들과 협력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 단체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인형, 남자아이들을 위한 공기 주입식 촉구공을 비롯해 펜과 연필, 종이 등 다양한 물품을 상자에 담았다. 새 시설에서 처리된 선물 상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진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에 새로 문을 연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센터에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

(Samaritan's Purse) 센터에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역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미국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과 "다음 세대에게, 베푸는 삶의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기부 및 자선 문화를 언급하며,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나부터'라는 사고가 지배하는 '나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돋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장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부터 지역 및 타주 교회 단체까지 다양했다. 그래함 목사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들뿐 아니라 미국 10개 주에서 온 참가자들이 새 센터를 찾아 봉사에 동참했다.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센터에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볼티모어 지역 센터의 목표는 100만 개 이상의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것이지만, 사마리안퍼스는 올해 약 1,200만~1,300만 개의 상자를 전 세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마리안퍼스는 각국의 현

지 교회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필요 수준을 파악한 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 상자를 전달할 국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샬롬한의원

Diamond Bar Shalom Acupuncture Clinic (샬롬한의원)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DR. JUNE KIM, L.AC.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세계 성공회 보수 세력 교단 지도부 재편 시도 본격화



▲로랑 음반다 대주교.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전 세계 성공회 내 보수 세력인 세계 성공회미래회의(GAFCON, 이하 가프콘)가 교단의 상징적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이후, 교단 지도부의 재편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프콘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16일(이하 현지시각) '순교자의 날 성명'으로 알려진 선언문에서, 캔터베리 최초의 여성 대주교 사라 멀러리(Sarah Mullally)가 동성애 축복을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캔터베리 연계 구조와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가프콘은 주류 성공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최근 레즈비언 신분의 체리 밴(Cherry Vann) 주교가 웨일스 대주교로 임명된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가프콘대주교위원회(Gafcon Primates Council) 의장 로랑 음반다(Laurent Mbanda) 대주교는 최근 "성명 발표 이후 열린 첫 공식 회의에 500명의 대표가 초청됐으며, 50명의 주교가 참석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진지한 소환은 우리 공동체의 단결과 신념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프콘 대변인은 "내년 3월 나

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리는 G26 주교회총회가 글로벌 성공회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폴 도니슨(Paul Donison) 총서기 주교는 12월 11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아부자 이후에 재편성의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니슨 주교는 "캔터베리 권위 포기 선언 당시 전 세계 성공회, 특히 글로벌사우스에서 강력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적 의미에서 성장을 재정돈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했다.

도니슨은 "캔터베리 대주교, 램버스 회의, 성공회자문회의(ACC) 등이 성공회 정체성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이들은 현대적 혁신의 뿐이며, 단결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력은 세계교회 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아부자에서 예루살렘 선언을 지지하는 수장들은 함께 새로운 수장 회의를 구성하고,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째 사도'(primus inter pares)를 선출할 것"이라며 "기독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력 또한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보이지 않는 집단학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절규



존 스톤스트리트 회장. ©기독일보 DB

하는 폭력의 책임이 있는 금진 이슬람 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픈도어즈 USA(Open Doors US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14년 이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였으며, 2025년은 단연코 최악의 해였다. 2025년 첫 7개월 동안에만 7,000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살해되었는데, 이는 오픈도어즈가 2024년에 보고한 수치의 두 배에 달하며, 종교 관련 살인 사건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나이지리아의 폭력 사태는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그리고 2009년 이후 무장한 풀라니(Fulani) 유목민 등 급진 이슬람 지하디스트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참수, 교회 폭탄 테러 등 명백한 표적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종교 난민이 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상황 속에서 오픈도어즈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화'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폭력을 유목민과 농민 간의 토지 분쟁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토지 분쟁의 원인을 기후 변화로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터무니없는 설명들은 분쟁의 공통된 핵심 요소를 외면하고 있다. 박해자는 언제나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언제나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성식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정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8: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놀 끌르는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써니김 담임목사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김성원 담임목사
세번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이침 10시반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 방송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토요대예배회 오전 6:00(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토요대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오전 6:00(온라인)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GM (화~금) 오후 1:0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튜브 오전 11:00 토요대예배 오후 5:30
종교동부 오전 10:30 토요대예배 오후 6:00(토)

고광선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김은광 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백승우 목사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성공부 오후 8:30

김은광 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세번예배 오전 6:0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학교 오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세번예배 오전 6:00(화~금)

김기섭 담임목사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어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막예배(금)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찬양예배(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금)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금)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금) 오전 5:30(월-금)
정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복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김종규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LA 동부 지역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9:30
EM 1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화-토)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여 사명을 위임여시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니제르에서 납치된 美 선교사 두 달째 행방 묘연



▲케빈 라이드아웃 선교사와 그의 딸. ©X/ Rev. Mark Harris NC

미국인 선교사 케빈 라이드아웃(Kevin Rideout·50)이 지난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각) 니제르 수도 니아메이 대통령 궁 인근 자택에서 신원 미상의 세 남성에게 납치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어떤 단체도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거나 몸값을 요구하지 않아,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OSV뉴스에 따르면, 니제르 마라디 교구에서 활동 중인 어거스틴 안우치(Augustine Anwuchie) 신부는 “이번 사건은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며 “범인이나 피해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납치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인질 가족들과 접촉하며 명확한 요구를 했으나,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드아웃은 미국 기반의 국제 선교 단체 ‘Serving in Mission’(SIM) 소속으로, 2010년부터 아내 크리스타 및 네 자녀와 함께 니제르에 거주해 왔다. 그는 형이안과 함께 조종사로 활동하며 니제르와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선교사와 장비

를 운송했다. 아내 크리스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새로 온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음악 교육과 고아원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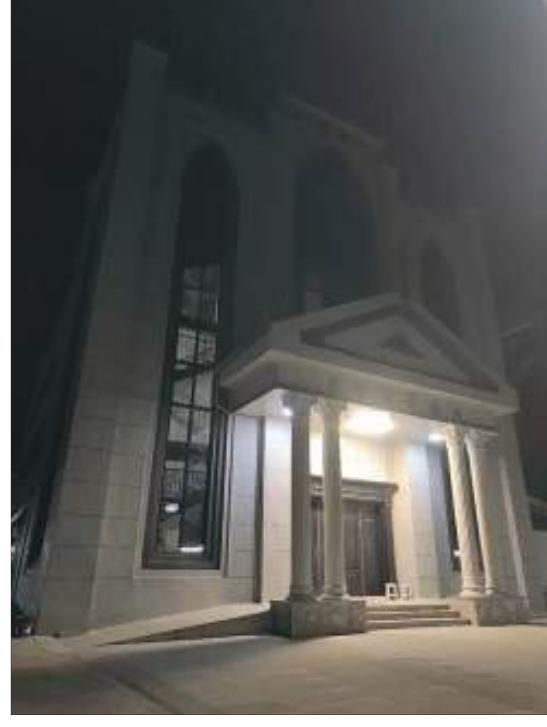
미 국무부는 라이드아웃의 석방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과 외교 관계 악화로 인해 구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미군의 니제르 철수와 드론 기지 폐쇄로 현지 작전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니제르는 인구 약 3천만 명 중 기독교인이 2% 미만에 불과한 무슬림 다수 국가다. 사헬 지역에 위치한 니제르는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폭력으로 심각한 인도주의 및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180건의 공격이 발생했으며, 2023년 7월 쿠데타로 압둘라하마네 치아니(Abdourahamane Tchiani) 장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니제르와 인근 국가에서 외국인 선교사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총기 규제로는 구원할 수 없는 세상 성탄이 말하는 진짜 희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슈아 아놀드 작가의 기고글인 ‘학살과 종기 난사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탄절은 어떻게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가?’(Massac

中, 저장성 작은 마을에 공권력 1천여 명 투입... 기독교인 수백 명 체포



와양 총회로 알려진 교회의 전경. ©China Aid

지난 12월 15일 저녁, 중국 저장성 웨저우시 타이순현 와양 마을의 정부 광장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날은 전통적인 축제일도 공식적인 기념일도 아니었으며, 불꽃놀이에 사용된 비용은 100만 위안(약 2억 1,06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불꽃놀이가 펼쳐진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독교 밖에 감시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현지 주민들과 온라인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불꽃놀이는 기념 행사로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은폐하기 위한 표면적인 장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공권력 1천여 명 투입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여러 인터뷰에 따르면, 작전 기간 현지 온라인 정보는 철저히 통제됐고, 체포 사실을 공공 플랫폼에 알리는 것도 거의 불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일 저녁의 불꽃놀이는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 인터뷰에 따르면, 작전 기간 현지 온라인 정보는 철저히 통제됐고, 체포 사실을 공공 플랫폼에 알리는 것도 거의 불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일 저녁의 불꽃놀이는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승연 기자

크리스마스의 X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칼럼니스트 닐 리스(Neil Rees)가 최근 「크리스마스의 X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Xmas’라는 표기법을 두고 논란이 일곤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X’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사라진다고 우려하지만, 사실 이 표기는 고대부터 깊게 뿌리내린 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는 ‘ΧΡΙΣΤΟΣ’(Christos)이며, 영어의 ‘Christ’는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특히 첫 두 글자인 키(X, chi)와 로(P, rho)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성한 모노그램으로 사용됐다. 이 두 글자가 얹혀 만들어진 키-로(Chi-Rho) 상징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교회의 제단, 성배, 스테인드글라스 등에서 널리 쓰였다. 이후 수도사들과 서기관들은 Xp̄istos의 첫 글자인 ‘X’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는 약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Xmas’라는 표기는 근대 산업문화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

미 1100년경 앵글로색슨 연대기에는

불꽃놀이 영상과 함께 다수의 인터넷 여론 공작 계정들이 “당과 함께 하라”는 정치적 구호가 담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네이션들이 불꽃놀이의 이유를 묻자, 이 계정들은 이를 “폭력 범죄 단속을 위한 대중의 자발적인 기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현지 주민이라고 밝힌 일부 네이션들은 “불꽃놀이 전후로 여러 기독교인들이 체포됐고, 일부 가정은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고 익명으로 언급했으나, 해당 댓글들은 곧 삭제됐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현지 교회의 주요 인물 두 명, 린언자오(58)와 린언초(54)였다. 두 사람은 ‘범죄 조직의 주요 용의자’로 분류됐고, 각각 1,000~5,000위안(약 21만 ~105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그러나 공고에 명시된 혐의는 “시비를 일으켜 문제를 만든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제시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고에서는 이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다. 여러 현지 주민들은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문제에 관여해 왔으며, 특히 린언자오는 10여 년 전 교회 십자가 철거에 반대하다 수배된 인물로, 성도 사이에서 교회 권리를 지킨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최근 국가 강제 설치에 반대하며 주목받았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저장성 당국이 교회 입구에 오성홍기를 강제로 설치하려 한 정책과 맞물려 있다.

2014년 십자가 철거 이후 누적된 갈등의 폭발

신뢰할 만한 여러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갈등이 집중적으로 폭발한 결과”라고 전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교회가 정부의 종교 관리 정책에 저항하며, 교회 입구에 국기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한 데 있었다.

올해 6월 24일, 와양 마을의 시장 리빈은 1백여 명의 인력을 이끌고 와양 교회에 침입해 교회 울타리와 문을 철거하고, 강제로 국기 계양대를 설치해 국기를 걸었다. 이는 현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종교 공간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졌고,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결집된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시작된 십자가 철거 이후, 현지 신자들은 교회 철거와 감시 장비 설치에 반대하는 집단적 저항을 지속해 왔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여러 인터뷰에 따르면, 작전 기간 현지 온라인 정보는 철저히 통제됐고, 체포 사실을 공공 플랫폼에 알리는 것도 거의 불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일 저녁의 불꽃놀이는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승연 기자

크리스마스의 X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칼럼니스트 닐 리스(Neil Rees)가 최근 「크리스마스의 X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Xmas’라는 표기법을 두고 논란이 일곤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X’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사라진다고 우려하지만, 사실 이 표기는 고대부터 깊게 뿌리내린 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는 ‘ΧΡΙΣΤΟΣ’(Christos)이며, 영어의 ‘Christ’는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특히 첫 두 글자인 키(X, chi)와 로(P, rho)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성한 모노그램으로 사용됐다. 이 두 글자가 얹혀 만들어진 키-로(Chi-Rho) 상징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교회의 제단, 성배, 스테인드글라스 등에서 널리 쓰였다. 이후 수도사들과 서기관들은 Xp̄istos의 첫 글자인 ‘X’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는 약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보불의 표시: 해적 지도 속 X는 보물이 묻힌 곳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성경적 의미와 연결된다.

△미지수: 수학에서 x는 답을 찾아야 하는 미지수다. 이는 크리스마스의 침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사랑의 표시: 편지 끝의 X는 키스를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십계명과 우리의 부족함: 로마 숫자 X는 10을 의미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십계명을 상기시킨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인 1천여 명 체포해 교회 급습

앞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작전에는 형저우, 광양 등지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이 동원됐다. 15일 새벽 3시 20분, 특수부대는 ‘와양 총회’(Yayang Assembly)로 알려진, 와양 지역의 대표적 교회에 침입해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도 최소 4명을 추가로 구금했으며, 교회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 없이 약 5일간 작전을 이어갔다.

공권력은 체포된 인물들의 소지품은 불법으로 압수했고, 교회로 가는 도로는 전면 통제하면서 와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최승연 기자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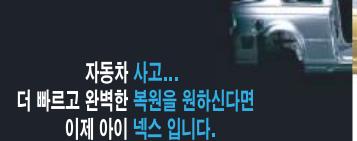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 dmediacontents@gmail.com

지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최소값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교통사고 전문

제공하는 수술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무증 즐기는
한월분 \$70

각종모임 주문한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Cooking Mom

영어의 전서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얼께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텍사스 홍수 피해 구호현금 전달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가 텍사스 홍수 피해 구호현금을 전달했다.

지난 7월 텍사스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Korean American Annual Conference, GMC)가 구호현금 56,853달러를 GMC Mid-Texas 연회에 전달했다. 이번 폭우와 홍수는 텍사스 중부 여러 도시의 캠프 시설, 주택과 상가, 도로 기반 시설을 심각하게 침수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터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한미연회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회복의 손길에 동참할 것을 적극 독려했고, 미 전역의 한미연회 소속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

며 정성 어린 구호 현금을 마련 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제자도의 정신이 담긴 귀한 나눔의 결실이다. 구호현금은 지난 10월 30일, 한미연회를 대표 하여 김원동 목사(달라스중앙감리교회 EM)가 텍사스 프리스코에 위치한 First Frisco GMC 교회 담임목사이자 Mid-Texas 연회 달라스 지방감리사 마크 보웰 목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 현금은 Mid-Texas 연회 본부를 통해 피해 지역교회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갑작스런 홍수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섬기는 텍사스 중부 지역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재건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한미연회 류계환 총감리사는 구호현금 모금에 참여한 한미연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 를 표했다. 김민선 기자

나이지리아 교회 공격으로 기독교인 13명 납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나이지리아 코기주에서 교회를 겨냥한 무장 공격 이후 기독교인 13명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주일 예배가 진행 중이던 퍼스트 에반젤리컬 처치 위닝 올(First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을 향한 총격으로 시작됐다. 무장 괴한들이 교회에 침입해 공격을 하자, 지역 사냥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무장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격자 5명이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무장단체는 약 3주 전 인근 지역의 한 학교를 공격하려다 주민 자경단의 저항으로 물려난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고, 혼란 속에서 교인 13명을 납치한 뒤 도주했다. 이번 사건은 나이지리아 보안 당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현지에서는 보안 인력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투입되더라도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무장세력을 근본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방지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쇄적인 납치와 공격이 계속되자, 불리 아흐메드 티누부나 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병력을 거의 두 배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적인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보안 당국은 지역 사냥꾼들과 협력해 납치된 13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수색은 에지바(Ejiba) \$1000 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납치범들의 정확한 위치와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지난 11월 중순 이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는 최소 8건의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연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딜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이창남 칼럼

“다시 성탄의 기쁨으로 경배하는 교회”



이 창 남 목사

OC교협 회장/주님의손길교회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탄은 화려한 계절의 장식이나 익숙한 이야기로 소비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구원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

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권력이 아닌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세상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밝아 보이지만, 동시에 깊은 어둠을 품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계는 얕아졌고,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 거센 흐름 속에서 본질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성탄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불들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성탄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한 날의 기념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떤 삶으로 세상 속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미주 이민 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의 등불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다음 세대를 품었으며, 공동체의 중심으로 서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탄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어진 계절입니다. 더 크게 말하기보다 더 낫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깊이 사

랑하며, 더 빨리 판단하기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성탄을 맞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불들기 원합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지만, 빛은 이미 오셨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이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미주 교계 위에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탄의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암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강준민 칼럼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6:47-48)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지성의 양식인 책이 우리의 지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가 생각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은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은 누추한 곳입니다. 깨끗하지도, 잘 정돈된 곳도 아닙니다. 냄새가 나고, 소와 말의 배설물이 있는 곳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구간 같습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의 자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영기를 끌어진 마음,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 같은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정돈된 집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 지친 영혼, 냄새 나는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부끄러워하며 고백합니다.

때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향기를 빨하지 못하고 냄새가 납니다.”라고 고백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꾸미지 않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제 마구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 모든 모습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 주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히 여겨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도 마구간과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눅 2:12). 구유는 소와 말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작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작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구유는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빈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높여 주기 위함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인간을 높이셨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이라”(고후 8:9). 예수님의 작은 곳

에 태어나신 것은 작은 것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밀알로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요 12:24).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목자도, 동방 박사도, 소외된 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껴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왕궁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구유를 찾으십니다. 낮고, 비어 있으며, 수줍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마 10:45).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구유는 십자가의 전주곡이며,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후,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고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은 더 이상 사람들이 떠물기 싫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임하신 순간, 마구간은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구유도 더 이상 초라한 장소가 아닙니다. 빛나는 장소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동성한 헤택 연말 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6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 헌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마22:37~40)

미주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유치부 주일예배 – 오전 11: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예배 – 오전 10:30
금요예배 – 오후 0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김진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교회 홈페이지 www.wpca.org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라스베가스 중앙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화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성인/ 오후 7:00 Youth Group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임인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489-2999



그리스도의 흔적을 행하는 주님 Church (갈6:17)

주님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주일예배 장소 : Sonora High School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사무실 :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T. (626)901-9191 / www.joonim.org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22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평화교회

2026년 표어: 영적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Bible Academy: 저녁 7:00
금요기도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6:00



김은목 담임목사

USA-California를 복음화 하자!-MEX

주소 및 전화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251-9191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김은목 칼럼

다시 성탄의 기쁨으로 경배하는 교회



김은목 목사
남가주교협 56대 회장목사
평화교회 담임

2025년은 유난히 경기가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LA 지역의 식당들이 하루에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접어들면서 도로에는 다시 차량이 늘어나고, 식당과 상가들도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장식과 선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속에 따뜻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만들어 내는 연말의 분위기일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은 그보다 더 깊고 분

명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천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소식 앞에 가장 먼저 경배한 이들은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 혹은 세상의 화려한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일상의 자리였던 들판을 떠나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을 경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조정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경배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자들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예배에 있으며,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극

단적 이기주의가 확산되며, 탈기독교를 넘어 탈종교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시대 변화라기보다, 교회가 다시 본질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교회의 해답은 더 빠른 대책이나 더

세련된 전략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시 성탄이 말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탄은 교회가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교회의 주권을 돌려 드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경배와 순

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교회가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한마디로 담아내는 말이 바로 “Merry Christmas”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담대하게 “Merry Christmas”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인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동방의 박사와 들판의 목자들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설 때, 세상은 다시 성탄의 기쁜 소식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탄의 은혜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목동 칼럼

Happy Holidays~!! 유감



신명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Christmas~!!로 답해 주었다. 과거에 성탄절을 앞두고 지극히 당연했던 성탄인사들이 이제는 점점 들을 수 없는 인사가 되고, 모든 매스컴들은 열심히 Happy Holidays!라고 인사한다.

필자가 종종 시청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제법 인지도가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진행자가 박학다식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주어서 호감을 가지고 영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 진행자가 했던 말이 필자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진행자가 ‘오늘날 혼란한 시대이지만, 성탄의 계절에 산타클로스가 지구촌에 평화의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속상한 이야기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성탄절이 다가 오지만, 현재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들은 Merry Christmas~!!라고 말하지 않고, Happy Holidays!라고 인사하는 것을 볼 때, 필자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였다.

이렇게 Merry Christmas~!! 가 Happy Holidays!로 변하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성이 있음을 자

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미국에서 Merry Christmas 대신 공개적으로 Happy Holidays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1950~60년대에 대형 백화점, 광고에서 추수감사절 + 성탄절 + 새해를 한꺼번에 묶어 비지니스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일상적·종교적 맥락에서는 여전히 Merry Christmas가 암도적이었다.

그러는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 시절에 백악관 크리스마스 카드와 공식 성명 일부에서 “Season’s Greetings,” “Happy Holidays”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9)은 명확한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Merry Christmas, and may God bless you.” 인사하였다. 그래서 레이건은 Happy Holidays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은 Happy Holidays를 백악관 공식 카드·성명에서 정례화 하였고, 이것이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바락 오바마(2009~2017)는 8년 동안 모든 공식 연말 메세지에는 항상 Happy Holidays만을 사용하였다.

역시 그 기간동안 모든 언론들도 대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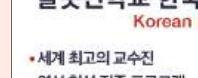
캠페인을 하듯이 더 이상 Merry Christmas가 아닌 Happy Holidays를 암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도날드 트럼프(2017~2021) “We’re saying Merry Christmas again.”이라는 연설을 통하여 지금까지 Merry Christma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Merry Christmas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매스 미디어들이 아무리 Happy Holidays라고 외쳐도, 우리는 언제나 Merry Christmas~!!라고 당연히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 미국이 이렇게 Merry Christmas~!! 인사를 사라지게 된 책임은 진보적 정치인이나, 매스 미디어 탓이 아니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깊은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에 모여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들 마저도 크리스마스 날에 기뻐하며 모여 예배하지 않는 데, 어찌 세상을 탓할 수 있을까? 하여 성도들이 무척 힘들어 하지만 다행히도 필자가 섬기는 미라클 LA 교회는 성탄절 새벽예배, 성탄절 예배를 변함없이 드리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교회여 진정 Merry Christmas!!를 축하하자!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 온라인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a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리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경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ptsa.edu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2833

Tel: (714)525-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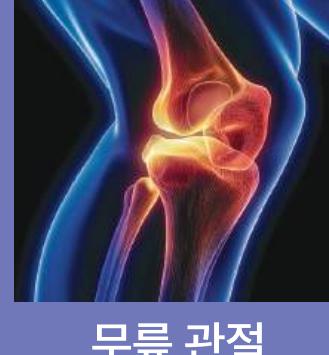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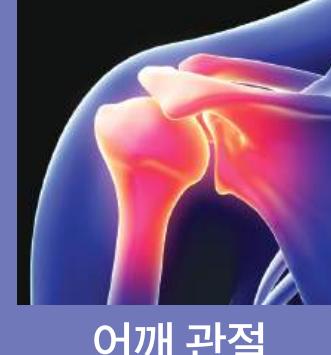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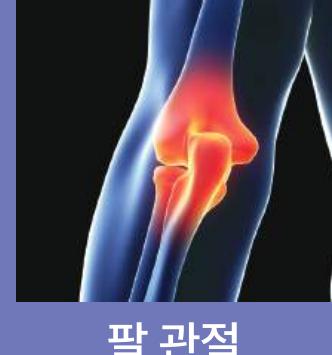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리,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염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독교 세계와 세속주의 이후 공공신학

어느 때보다 세속적인 사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왜 늘고 있나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
일레인 그레이엄 | 박세혁 역 |

비아토르 | 524쪽 | 33,000원

공공신학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자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신학
담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영역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레인 그레이엄은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저명한
저자 중 한 사람이다

서구 근대성에서 전형적인
종교적 쇠퇴 궤적의 많은
특징이 여전히 뚜렷하지만,
지역·국가·세계 등
공공 생활과 정치에서
종교적 부흥의 강력하고
활기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교와 공적 영역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구분하는
서구 자유주의 정치 이론뿐
만 아니라 고전적인 세속화
이론에 수정이 필요하다

일레인 그레이엄의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는 변화하는 종교적 지형을 분석하고, 후기 세속 사회에서 공공신학의 역할과 가능성 을 탐구한다.

저자는 서구 사회가 세속적에서 탈세속적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앙에 기반한 참여가 부활하는 탈세속의 윤곽을 추적한다. 이 책은 공공신학이 후기 세속 세계에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 신학적·전략적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변증의 한 형태로서 공공신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호세 카사노바(José Casanova),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를바 후기 세속사회의 종교 담론이 근대 세계의 도덕적·윤리적 자원으로서 종교의 기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와 공적 영역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구분하는 서구 자유주의 정치 이론뿐 아니라 고전적인 세속화 이론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1세기 초에 부상하고 있으며 공적 상상력을 지배하는 종교적 신앙은 이전의 신앙과 많은 점에서 매우 다르다. 이는 종교적 부흥이라기보다는, 더 파편화되고 더 지구적이며 더 이종적인 공적 논쟁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탐색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2부: 후기세속적 공공신학의 도전과 과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후기 세속 사회에서 공공신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다룬다. “번역 중에 잊어버린 의미?: 공공신학의 딜레마”, “공적으로 말하기: 세속적 이성과 교회의 목소리”, “십자군과 문화 전쟁: 복음주의 정체성과 정치의 위험”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 그레이엄은 공공신학이 신학적 언어를 일반적 공적 담론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분석한다. 특히 공공신학을 변증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대

를 분석한다. “흐름의 변화: 어떻게 종교는 ‘공적인 것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1장과 “불안한 변화: 후기세속의 지도 그리기”라는 2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전 지구적으로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재등장하고 있으며, 세속화 이론으로는 오늘날의 종교 지형을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럽, 미국, 한국 공히 세속화와 탈세속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권 교회의 쇠퇴와 대비되는 비종교인의 증가 현상은 시민사회와 종교성이 결코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저자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호세 카사노바(José Casanova),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를바 후기 세속사회의 종교 담론이 근대 세계의 도덕적·윤리적 자원으로서 종교의 기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와 공적 영역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구분하는 서구 자유주의 정치 이론뿐 아니라 고전적인 세속화 이론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1세기 초에 부상하고 있으며 공적 상상력을 지배하는 종교적 신앙은 이전의 신앙과 많은 점에서 매우 다르다. 이는 종교적 부흥이라기보다는, 더 파편화되고 더 지구적이며 더 이종적인 공적 논쟁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탐색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2부: 후기세속적 공공신학의 도전과 과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후기 세속 사회에서 공공신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다룬다. “번역 중에 잊어버린 의미?: 공공신학의 딜레마”, “공적으로 말하기: 세속적 이성과 교회의 목소리”, “십자군과 문화 전쟁: 복음주의 정체성과 정치의 위험”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 그레이엄은 공공신학이 신학적 언어를 일반적 공적 담론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분석한다. 특히 공공신학을 변증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대

체로 개혁주의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에 의해 출발됐다고 지적 한다. 저자는 공공신학의 과제는 종교의 재부상이라는 바위와 기관의 쇠퇴와 세속주의라는 딱딱한 공간 사이에서 길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교회가 후기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양한 세계 관과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3부: 기독교 변증으로서의 공공신학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공신학을 기독교 변증의 한 형태로 재해석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유대인, 이교도, 회의론자, 황제”와 “현전의 변증: 기독교 세계와 세속주의 이후 공공신학”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레이엄은 공공신학이 탈세속 세계에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 신학적·전략적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교회의 교리와 실천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라는 일상으로 번역하는 공공신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그레이엄은 현전의 변증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히 지적 논증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현

존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후기 세속 시대에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레이엄의 저작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세속화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후기세속 사회의 종교적 지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사회의 종교적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론: 변화하는 시대의 공공신학

일레인 그레이엄의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는 후기세속 시대 공공신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탁월한 저작이다. 그레이엄은 공공신학의 과제가 종교의 재부상이라는 바위와 기관의 쇠퇴와 세

속주의라는 딱딱한 공간 사이에서 길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한 표현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그의 성호를 드래깅하라
이호오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풀려울지로다

역대상 16:10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1 CHRONICLES
16:10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한빛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알브레히트 뒤러 〈네 명의 사도〉

뒤러-라파엘로 작품으로 비교하는 개신교와 가톨릭

뒤러, 교회 도덕적 타락과 교황 권력 남용 초대교회 순수성 회복, 교회 개혁 등 루터 한결같은 지지 그의 교회 갱신 사상 작품으로 가톨릭 정신 담은 라파엘로 작품 〈시스티나의 성모〉와 비교도

곤고하고 불안한 시대를 순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은 화가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에게 신앙의 재무장과 아울러 도전의식을 안겨 줬다.

뒤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고귀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삶에 관심을 기울였던 뉘른베르크 기독교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신앙갱신 운동에 동참했고, 예술 작품에 자신의 신념을 실었다.

〈네 명의 사도〉(1526)는 이런 신앙 갱신 운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오른쪽에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마가다.

두 패널의 앞쪽 두 명(요한과 바울)이 비중 있게 다뤄진 반면, 다른 두 명(베드로와 마가)은 덜 비중 있게 묘사되었다. 복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요한과 바울 두 사도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주홍색 망토를, 다른 패널 쪽에 위치한 바울은 순결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 망토를 걸치고 있다.

요한과 바울이 성경을 읽거나 들고 있는 데 비해, 베드로와 마가는 뒷전에 물러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각각의 패널은 두 명의 인물을 대칭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상호 조화를 돋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아무 것도 더하거나 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뛰어난 네 사람,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마가의 경고를 경청하라.”

이 같은 경고를 기록한 것은 당시

의 정치적·종교적 배경과 거짓 교리를 촉진한 종교적 타락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 뒤러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루터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영향력 있는 시민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다.

루터의 의견을 좇아 요한과 바울

이 뒤러의 그림에서 중요하게 조명

이 된 데 비해, 베드로와 마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조명되었다.

종교개혁 때 교황의 권위에 대한 논

쟁에 비추어, 베드로를 요한 뒤에 배

치한 것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기는 로마 교황청을 염두에 두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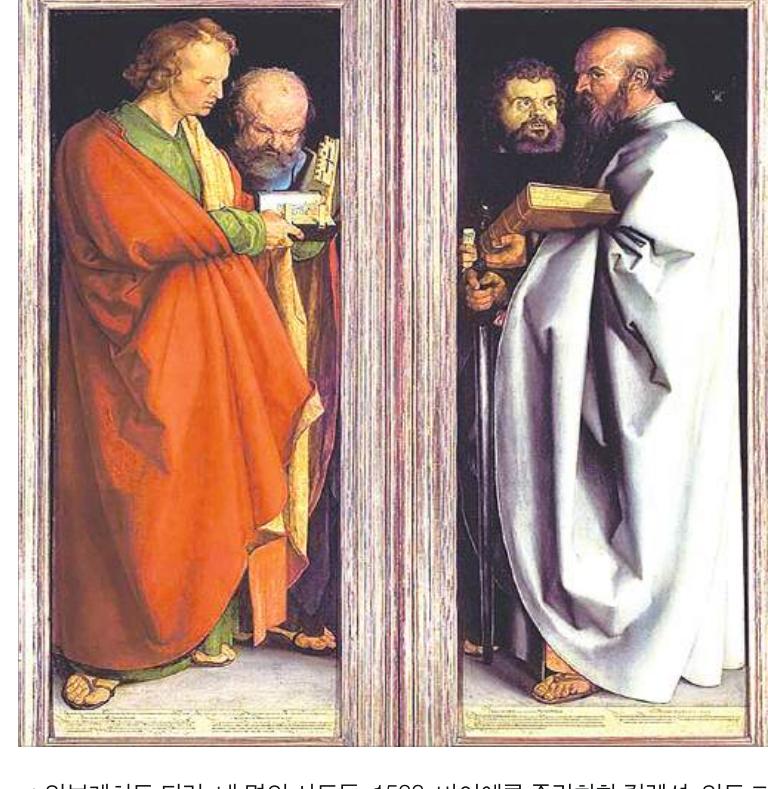
루드비히 그로트(Ludwig Grote)는 이 그림에 대해 “로마의 첫 교황 이자 초대교회 반석인 성 베드로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성 요한을 보여줌으로써 뒤러는 교회에 있어 오직 유일한 권위는 교부도 아니며, 교황도 아니며, 교회의 회의도 아닌, 하나님 말씀임을 루터식 언어로 명쾌히 밝혔다(Carl C. Christensen, “Dürer’s ‘Four Apostles’ and the Dedication as a Form of Renaissance Art Patronage”, Renaissance Quarterly, 20 (3), 1967, pp. 325-334)”고 주장했다.

뒤러의 그림은 종교개혁의 또 다른 핵심을 알려준다. 네 명 중 세 명, 즉 요한과 베드로, 바울은 성경을 읽거나 들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요한복음 첫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들로 하여금 종교적 변혁을 이루어내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른손에 복음서의 일부로 보이는 두루마리를 움켜쥔 마가(그의 얼굴은 뒤러가 베니스에서 본 맨테나(Mantegna)의 〈마가〉와 닮아있다) 이와 함께 왼손으로 성경을 받쳐들고 있는 바울을 통해 뒤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가톨릭 교리나 전설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된 성경 본위의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성모〉(1512)와 비교된다. 뒤러의 작품이 ‘네 사도’를 위주로 했다면, 라파엘로의 작품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삼았다. 즉 삼각형 구도 정점에 마리아를 놓은 〈시스티나의 성모〉는 좌우에 식스토스 2세(St. Sixtus)와 바르바라(St. Barbara)를 보조인물로 각각 배치했다.

화면 우측에 무릎을 꿇은 교황 식스토스 2세는 그림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등장인물로 기용됐다. 우측 여인은 바르바라인데, 아버지의 거듭된 배교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부친에 의해 순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화면 하단에는 교황 가문의 문장(紋章)인 도토리 모양



▲알브레히트 뒤러, 네 명의 사도들, 1526, 바이에른 주립회화 컬렉션, 알트 피나코테크 소장.

티아라(tiara)가 보이고, 푸티(putti)가 난간에서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예수 탄생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리아 사상(Mariology)’이 핵심 내용이며, 신자들이 그림 앞에서 성호를 긋고 고개를 숙였을 것을 상상하면 단순한 그림 이상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정된다.

마리아 배후에 그려진 일군의 그룹(Cherubim)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보기에 따라 마리아를 찬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세 시대에 그려진 성모 마리아 이미지가 ‘마리아 사상’에 따라 신성을 강조하였듯, 이 그림도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두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뒤러 작품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것인 데 반해, 라파엘로의 작품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 피아첸자(Piacenza)가 교황령(papal state)에 귀속된 것을 기념해 식스토스의 조카이던 율리우스 2세가 주문한 것이다.

산 시스토(San Sisto) 수도원 건립자가 교황 율리우스 2세였으므로 라파엘로는 당연히 교황 입김을 받았고, 식스토스와 그의 가문 문장까지 넣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기독교 회화로 포장되었지만, 실상 특정 가문의 힘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사회 전반이 얼마나 종교권력에 휘둘렸는지 짐작케 해준다.

이에 반해 〈네 명의 사도〉는 자발적으로 제작해, 의뢰자의 입김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다. 순전히 뒤러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입각해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가치를 강조한, 종교개혁 시대의 상징적 작품이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뉘른베르크 시에 작품을 기증했는데, 칼 크리스텐슨은 “종교개혁이 지역사회에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도입된 기념물(John Dillenberger, Images and Relics, Oxford University, 1999, 75쪽 재인용)”로 평가했다.

뒤러와 마르틴 루터의 만남은 의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루터에게 보낸 지지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지만 루터가 카를 5세에게 쫓겨 위기에 처했을 때, 즉 아우크스부르크에 은신해 있었을 때 그를 직접 찾았던 것이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교황의 권력 남용, 초대교회의 순수성 회복, 교회 개혁 등의 측면에서 뒤러는 루터에게 한결같은 지지를 보냈고 그의 교회 갱신 사상을 따랐다.

아우크스부르크에 다녀온 뒤, 뒤러는 루터의 안위가 걱정됐는지 “루터가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앞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말인가. …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https://christianhistoryinstitute.org/dailyquote/5/17/>)”고 자신의 일기(1521. 5. 17)에 적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라파엘로, 시스티나의 성모, 1512-1514, 265x196cm, 드레스덴 미술관.

축 성 탄

베이커스필드

한인 교역자 협의회

가주목양교회(안신기 목사)

사랑의교회(고의용 목사)

산소망교회(이윤형 목사)

은혜와진리장로교회(박순종 목사)

ANC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

지구촌교회(김준태 목사)

종인침례교회(진육화 목사)

한인장로교회(유진수 목사)

은퇴목사: 서달준 목사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주소 및 전화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김귀보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1시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2400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T. 972-904-3509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拜: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LA씨티교회

성도들을 일터선교사로 파송하는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10:5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